

봄철 참진드기 활동 시작, 전국 감시체계 가동

- 4월 13일부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 감시 개시
- 봄철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긴 소매 옷, 긴 바지 착용, 기피제 사용 등) 준수 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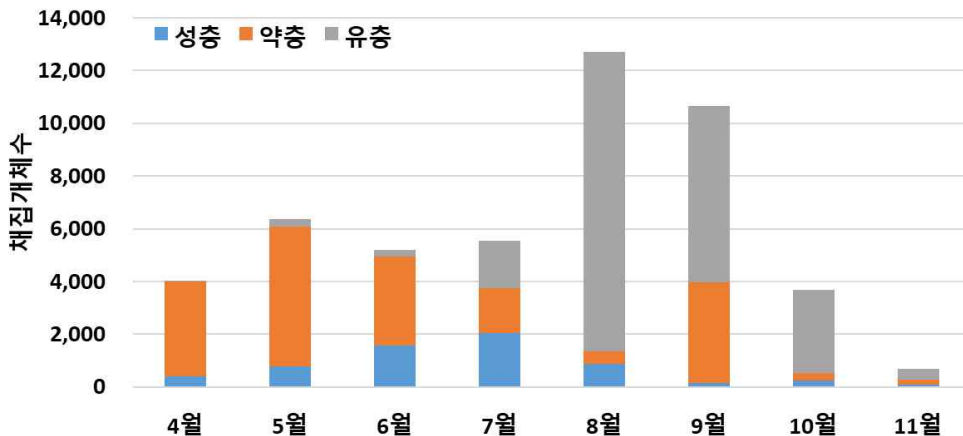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을 매개하는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4월 13일(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은 SFTS 감염 예방을 위해 매년 참진드기 감시 사업을 수행하여 매개체 밀도와 병원체 검출 결과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2026년 참진드기 감시 사업은 26개 지역에서 보건환경연구원 10개 기관(인천, 부산, 광주,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및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6개 대학이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감시 사업을 통해 수집된 참진드기 밀도와 병원체 검출에 대한 정보는 ‘감염병 매개체 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매월 국민에게 제공된다.

*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https://dportal.kdca.go.kr/>) >발간자료/실험실소식지 > 감염병 매개체 감시 주간 소식지



<2025년 참진드기 월별 채집 결과>

참진드기는 유충, 약충, 성충 단계에서 각기 다른 숙주에 기생하여 흡혈하는 습성을 가짐에 따라 모든 발생단계에서 SFTS 등 질병을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4~5월)부터 약충이 활동을 시작하여 여름철(6~7월)에는 성충이 되면서 산란을 하고, 가을철(9~11월)에는 유충으로 성장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국내에서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 중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으며, 주로 풀밭에 서식하므로 야외활동 시 접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SFTS 매개 참진드기: 작은소피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뭉뚝참진드기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 종류>

(A:작은소피참진드기, B:개피참진드기, C:일본참진드기, D:뭉뚝참진드기)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5~14일 이내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SFTS는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2025년까지 총 2,345명(연평균 180.4명)의 환자가 발생, 그 중 422명이 사망하여 18.0%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날이 따뜻해 지면서 야외활동 증가로 인하여 참진드기와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기, ▲야외활동 후에는 참진드기가 몸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하기 등 진드기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몸에 붙은 참진드기를 발견할 경우, 주둥이 부분이 깊이 박혀 있어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어렵고 2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제거 및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작업 및 야외 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착용하기
* 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기

◆ 작업 및 야외 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으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돛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 활동 후

-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하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 <붙임> 1. 2026년 SFTS 매개 참진드기 발생 감시지점
2. SFTS 매개 참진드기 관련 질의응답(Q&A)
3. 2025년 SFTS 매개 참진드기 발생 감시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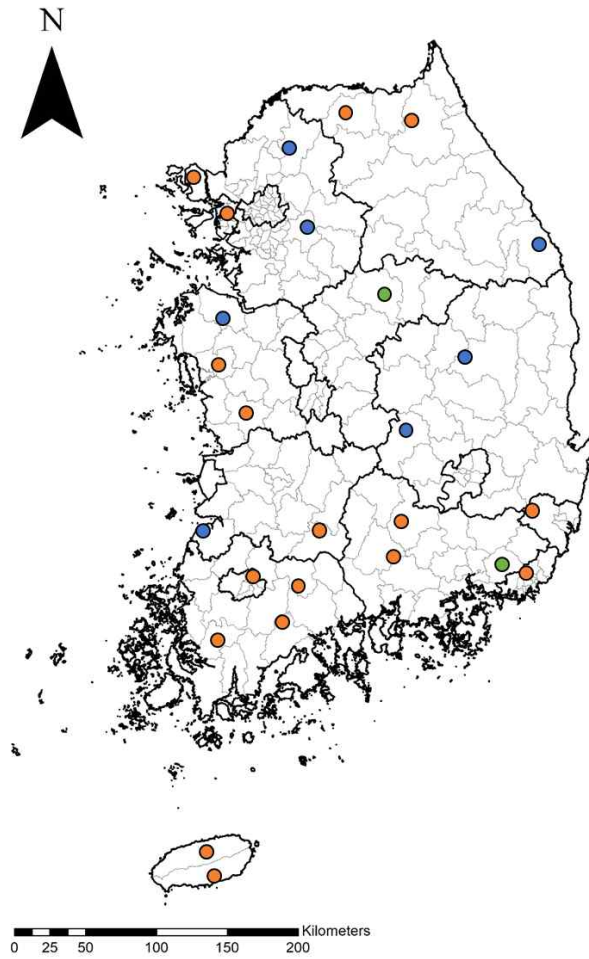
담당 부서 <총괄>	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희일 (043-719-8560)
		담당자	연구관	주정원 (043-719-8521)
담당 부서 <협조>	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책임자	과 장	여상구 (043-719-7160)
		담당자	사무관	이현수 (043-719-7161)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책임자	과 장	윤혜선 (051-602-0670)
		담당자	연구사	김현우 (051-602-0672)

붙임 1

2026년 SFTS 매개 참진드기 발생 감시지점

□ 전국 26개 지역에서 사람들과 접촉가능성이 높은 4개 환경(무덤, 잡목림, 산길, 초지)에서 4~11월 월 1회 참진드기 감시 수행

기관명	세부 기관명	감시 지역	기관명	세부 기관명	감시지역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충주시	보건 환경연구원	경상남도	진주시	
	경남권대응센터	경남 김해시			합천군	
보건 환경연구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귀포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삼육대	포천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대	광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거점센터	연세대	삼척시
		화천군			순천향대	당진시
	충청남도	부여군			경북대	고창군
	예산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경북대	김천시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안동시	
보성군						
영암군						



<2026년 참진드기 감시 지점 지도>

0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매개 진드기는 주로 어디에 있나요?

참진드기는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부착 대상이 수풀 속을 지나가면 숙주(사람, 야생쥐, 고라니, 멧돼지 등)에 붙어 흡혈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을 날아가 달라붙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진드기가 사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접촉하게 됩니다.

02 진드기에 물렸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무조건 감염되나요?

진드기에 물린다는 것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린다는 것을 동일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5%의 최소 양성률을 보여, 일부 진드기가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3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상은 없지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되었을지 검사해도 될까요?

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를 하여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진드기 제거법에 따라 진드기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합니다. 이후 14일 동안 발열, 구토, 설사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04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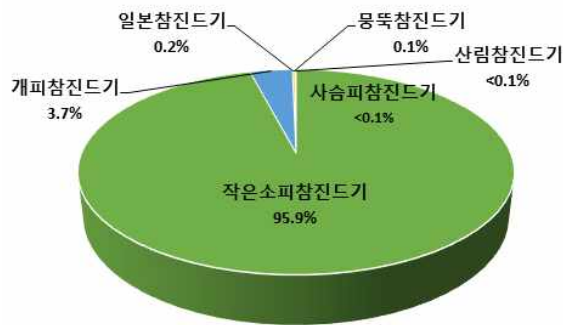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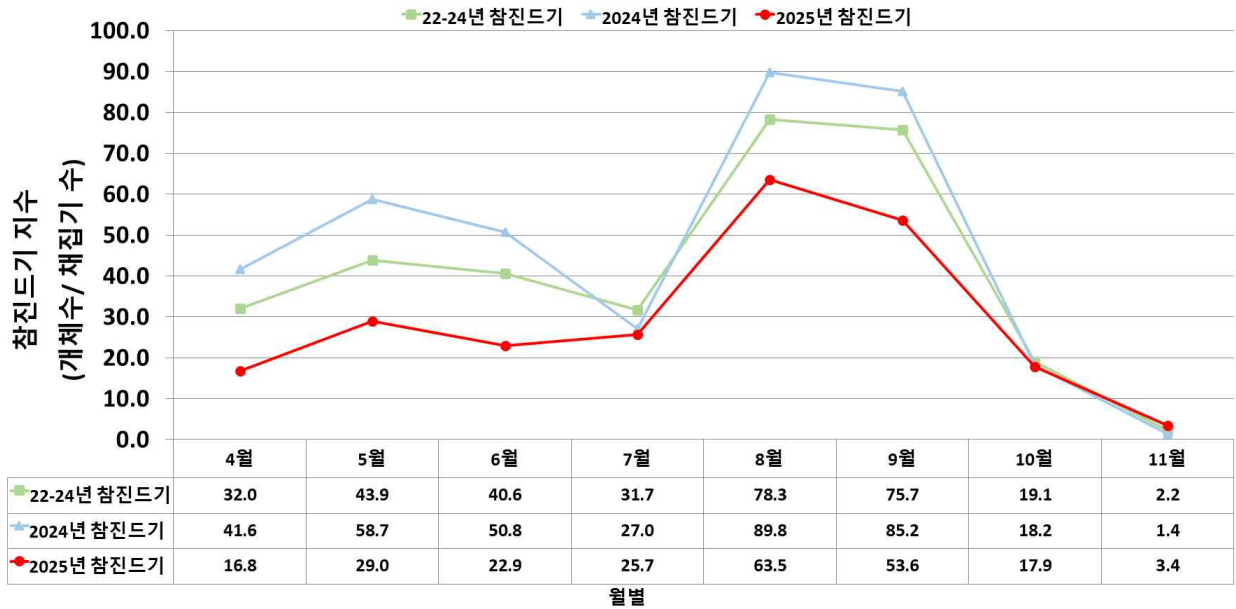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주의해야 하며, 야산지역의 발목높이 초지에서 참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다른 감염병의 예방에도 유효합니다. 풀숲이나 덩굴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하여 양말 안에 바지단을 넣고,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여 옷 안으로 진드기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를 하며,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0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걸린 진드기인지 어떻게 아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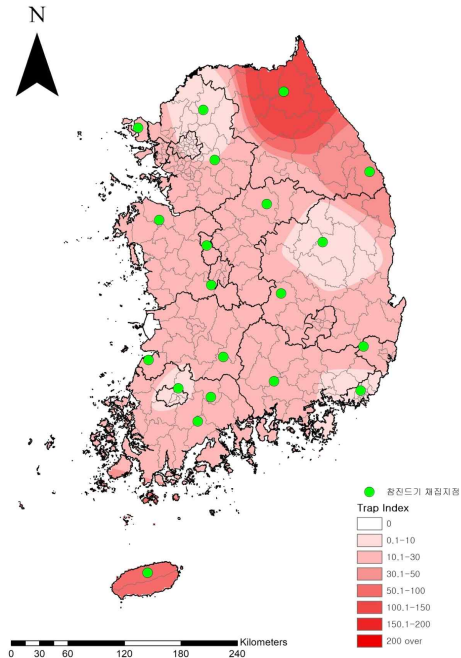
육안으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작은소피참진드기의 양성률은 약 0.5% 정도로 낮지만, 해당 진드기가 SFTS에 감염되었을 수 있으므로 진드기에 물린 경우에는 최대 14일까지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진드기의 SFTS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알고 싶은 경우 해당 거주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민원으로 의뢰하면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수행합니다.

□ 2025년 참진드기 발생감시

- 3속 6종, 총 48,897개체 채집
- 평균 참진드기 지수 29.1로 평년대비('22~'24년) 28.0%, 전년대비 37.6% 감소



<참진드기 종 분포도>



<2025년 참진드기 분포 지도>